

카테고리

유틸리티 토큰

토큰 발행량

총 발행량 126,250,000

토큰 분배율

Existing MFT Holders 79.2%

Hifi Labs Development 19.8%

Community Airdrop 1.0%

로드맵

2023년

- 유동성 NFT 프로토타입
- 담보 NFT
- 유동성 NFT v1

명세서

하이파이

티커 HIFI

고정금리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프로토콜

AMM 기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탈중앙화 금융 경험을 제공

하이파이 파이낸스(Hifi Finance)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디파이 프로토콜로,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이파이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고정금리를 산출,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탈중앙화 금융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HIFI는 하이파이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프로토콜의 정책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이파이 파이낸스의 핵심 참여자는 차용인, 대여자 및 유동성 공급자로 구성됩니다. 차용인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125%에 해당하는 ETH를 담보로 사용하여 스테이블코인(USDC)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AMM 알고리즘을 통해 고정금리가 계산되어 hUSDC가 발행됩니다. 대여자는 보유한 스테이블코인(USDC)을 대여하는 역할로서, 차용인으로부터 발행된 hUSDC를 고정금리 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USDC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해당 hUSDC를 USDC로 교환하면 원금에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동성 공급자는 하이파이 대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유동성을 제공하며 이를 대가로 차용인과 대여자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이파이 파이낸스는 ETH 기반 가상자산 담보 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NFT, 실물자산(RWA) 기반 토큰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이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담보 자산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HIFI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는 이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HIFI는 하이파이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참여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입니다. HIFI 보유자는 커뮤니티 참여자로서 거버넌스를 통해 프로토콜 매개변수 변경, 새로운 담보 유형 추가 등의 정책을 제안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HIFI 커뮤니티는 하이파이 프로토콜의 성장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핵심인력

이름	약력
Doug Leonard	CEO
Carl Youngblood	CTO, Co-founder
Mick Hagen	Chairman, Co-founder

법적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본인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